

‘공짜’ 알뜰폰이라더니... 어르신 울리는 ‘요금 폭탄폰’

광주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지난해 4월 ‘공짜’라는 말에 알뜰폰을 구입했다. 김씨는 최근 치매판정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김씨의 자녀가 사실을 알고 해제를 영업소요정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지를 거부했다.

장성에 사는 70대 나모씨는 3월 한 통신사로부터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월 2만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씨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 곳은 유명 통신사와 상호가 비슷한 소규모 통신사였고 요금도 더 많이 청구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폰과 관련,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판매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5월 아버이날을 맞아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피해 구제 신청현황에 따르면 총 498건 가운데



대면 판매를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 순이었다.

특히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알뜰폰 사업자(MVNO)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 총 27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월 2만원대’ 속인 뒤 실제 청구액은 더 많아

피해자 절반 가량 60대 이상 고령층

해약 요청엔 위약금 내라 소비자원, 주의경보 발령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60대 이상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루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주로 비



세탁물 일회용 비닐커버 사용 줄이기

세탁소 업자가 모니터 요원에게 이번 캠페인 취지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광주YWCA가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커버 사용 줄이기 모니터링과 캠페인(5월~7월 3개월)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서구 한 세탁소 업자가 모니터 요원에게 이번 캠페인 취지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제공>

공무원 시험 ‘합격률 1위’ 과장 광고 공정위, 온라인 교육업체 무더기 적발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합격률을 과장하거나, 거짓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에듀스파(주) 등 6개 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합격률 2명 중 1명은 본인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필기시험 합격 이후 학원을 등록한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켰고, 이를 포함해도 합격률은 50%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티엔컴퍼니, (주)윌비스, (주)웹프스터디 3개 업체는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한 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10일로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결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주)에듀윌은 ‘업계 최초 정부기관상 8관왕 달성’(지식경제부 대상 포함)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지식경제부 대상

수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주)고시넷, (주)미래비전교육, 에듀스파(주), (주)에듀패스 등 7개 업체는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양파·배추·쌈장 가격 연초보다 두자릿수 이상 뛰었다

소비자원, 4월 생필품값 분석

지난 4월 양파·배추·쌈장 가격이 연초에 비해 두자릿수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품목은 계절적 요인으로 1월부터 꾸준히 판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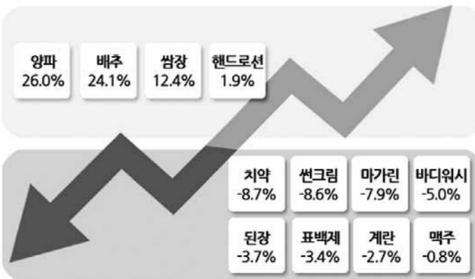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이 생필품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을 통해 수집한 올해 4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양파·배추·쌈장의 평균 판매가격이 1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품목별로 1월 대비 평균 양파는 무려 26%, 배추 24.1%에 달했다. 쌈장 역시 12.4% 판매가격이 상승했다. 양파와 배추는 계절상 본격적 출하시기가 아니냐 보니 판매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무지(-11.2%), 키친타월(-9.7%), 치약(-8.7%) 등 공산품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실시한 1+1, 할인판매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4월 한 달 간 제품별 최고·최저

4월 평균 판매가격 지속 상승·하락 품목(1월 대비)



판매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한국P&G 섬유탈취제 ‘페브리즈 깨끗한 무향(900)’으로 유통업체별로 최대 4.6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 전 참가격 사이트(www.price.go.kr)에서 판매가

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생필품 판매가격 동향은 주요 유통업체 대형마트(122개), 백화점(28개), SSM(91개), 편의점(3개), 전통시장(21개) 등 총 265개 판매점에서 생필품 12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비자 10명 중 6명 ‘온라인 쇼핑 경험’

한국 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온라인 쇼핑을 한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회사 칸타월드패널이 지난해 한해 동안 3000 가구의 소비자 구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3%가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사람의 절반 수준인 전체의 32%가 모바일 쇼핑을 이용했고 모바일만을 사용한 사람이 5%에 이

러,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지난해 한해 동안 3000 가구의 소비자 구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3%가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칸타월드패널의 조사에서 오프라인은 물론 PC와 모바일을 모두 이용한

경우가 전체의 27%를 차지해 국내 소비자가 멀티채널 쇼핑인 것을 입증했다.

연령대별로도 선호하는 쇼핑 채널이 뚜렷하게 구별됐다. 20대는 모바일이 주 채널이었고, 30대는 모바일과 PC, 40대는 PC 위주로 쇼핑을 했으며 50대는 여전히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의 경우 오프라인, PC, 모바일 이용자 그룹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했고 모바일과 오프라인만 이용한 그룹도 7%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아 20대가 모바일 쇼핑을 주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	---------------------------------------	---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